

결 정

2018 - 3064 신문윤리강령 위반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1월 16일자(캡처시각) 「평양에 병력 1만명 집결해...北 '심상찮다」 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Asia Business Daily (asiae.co.kr) on January 16, 2018. The main headline is "평양에 병력 1만명 집결해... 北 '심상찮다'" (10,000 troops gathered in Pyongyang... North Korea 'not good'). The article text includes: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 줄 알았다" 대체 무슨 일이, 박인숙까지 탈당...바른정당 '큰일났다', 한국당 행사에 제명당한 류여해 등이닥쳐..., MB 최측근들 "거짓말 했다" 줄줄이 폭로, 韓 무시하던 아베 입 열자 일본인들이... Other news items include "한국 내 일본인들 피난시키려고..." and "연애男 알고보니".

<캡처시각 18. 1. 16. 16:50>

『숨죽인 북한 동계훈련... 내달 열병식 준비 열중

최종수정 2018.01.16 13:36 기사입력 2018.01.16 10:34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매년 대대적으로 실시해오던 동계 군사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줄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무르익은 남북 간 대화 모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란 해석부터 미국의 선제타격론을 의식한 대응이란 분석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 동계훈련을 국가급으로 격상시키고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실전 수준'으로 준비하라"고 독려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올해 훈련은 큰 폭으로 축소된 분위기라는 게 군의 판단이다.

16일 군 관계자는 "북측의 해군, 공군의 동계훈련 움직임이 현저히 줄었고 육군 병력의 이동도 중부지역에서만 포착될 뿐 지난해보다 훈련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달 8일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준비하려는 일부 병력의 움직임은 포착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방지역 등에서 서울을 타격목표로 공세적으로 진행해오던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이 최근 포착되지 않고 있다. 통상 북한군 육군 특수전부대의 경우 지휘통제훈련, 공수강하훈련을 진행하고 핵·화학국 예하 화학대대도 전술훈련을 진행한다. 2016년 12월2일(노동신문 보도 기준)에는 김정은 참관 하에 원산 일대에서 서해5도와 수도권을 겨냥한 포병부대의 화력 타격도 실시했다.

동계훈련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공중침투작전기 AN-2기의 비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아울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형'을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고래급) 잠수함도 동해쪽 원산 해군기지 인근에 머물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한군은 동계 훈련 때마다 AN-2기를 이용한 타기지 이동훈련과 야간공수훈련비행, 해공군 합동공격훈련, 폭격기 연대협동훈련 등을 해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내달 8일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는 군용차량 500여 대, 병력 1만명 등이 집결해 열병식을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의 통치가 본격화한 지난 2015년부터 인민군 창설일인 2월8일을 '정규군 창설일'로 기념해왔다.

이를 놓고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타격 훈련에 나선 것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군이 아파치 헬기와 치누크 헬기 등을 동원한 공격훈련과 C-17 수송기를 이용한 낙하훈련을 벌였다

고 소개했다.

반면 일각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면서 북측의 군사훈련이 약화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은 (대북제재로) 항공유 등 물자 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동계훈련의 강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평창올림픽 이후인 3월 말에 육·해·공 합동타격훈련을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160823234543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북한이 매년 대대적으로 실시해오던 동계 군사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줄인 반면 2월 8일 ‘정규군 창설 70주년’에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는 군용차량 500여 대, 병력 1만명 등이 집결해 열병식을 연습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을 「평양에 병력 1만명 집결해...北 ‘심상찮다」」로 달아 마치 전쟁 준비에라도 나선 것처럼 표현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다. 이같이 기사 내용과 상반된 제목을 다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

위 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